

###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평주소망교회 담임

'한국의 톨스토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춘원 이광수는 타고난 천재였다. 일제 36년간 숱한 인물들이 나왔으나 이광수만큼 청년 대중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19세의 나이로 오산학교 교원이 되었고, 25세 때 '매일신보'에 연재한 '무정'은 찬반의 시비가 분분했으나, 거기에 언급된 자유연애 사상은 젊은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는 2.8 독립 유학생 독립선언문을 기초했고, 상해 임정의 사료 편찬위원회의 일을 보았으며,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의 사장 겸 주필로도 활약했다. 그러나 춘원은 기대한 것처럼 조선 독립이 쉽사리 실현되지 않고 독립의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자 일

곧 그 사람이더라는 말도 있다. 서예가 신영복 교수는 "다른 예술 작품과 달리 서예는 그 작가의 인격과 연결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 먹은 이완용의 글씨와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비교하곤 한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한 명인 이완용은 서예에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 '일당(一堂)'이라는 호를 쓴 그는 구한말 조선의 3대 명필 칭호를 들었는가 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에 버금간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완용의 그 훌륭한 글씨는 지금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글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글씨 자체로만 보면 이완용의 글씨가 훨씬 뛰어나지만 그의 글씨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반면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미술시장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거래 된다. 무엇인가?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완용도 이광수처럼 "나는...몰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 친일이냐고 판단하고 최고의 처세술로 산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온다.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자 졸다가 지쳐서 모두 잠들었다. 그때 "왔다."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 소리 "왔다."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 등불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다섯 명의 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다. 그래서 좀 나눠 쓰자고 하지만 우리 둘이 쓰

### "나는 몰랐다"

제의 앞잡이가 되었다. 춘원은 "조선인은 허위와 거짓에 가득 차 있고 조선인은 나태하여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조선인은 무식하여 생존의 능력이 없고 따라서 권리가 없다"라고 했으며 "조선인은 조선인인 것을 완전히 잊어야 하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 버려야 한다"라고 까지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1940년 부터는 참정개명을 하고 신문칼럼을 통해서 참정개명을 독려했다.

세상이 변하고 1945년 8월 15일을 기해 일본이 망하자, 이광수는 사골에 숨어버렸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5일 정부수립이 예정되자 8월 1일 재빨리 자기의 소신을 또 바꾸어버렸다. 결국 그는 6·25 전쟁 중 인민군에 끌려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게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자신들이 '춘원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기는 커녕, 가능하면 숨기려고 까지 하는 현실이 되었다.

훗날 이광수의 제자가 "선생님 같이 해안(解眼)을 가지신 분이 왜 5년 앞을 보지 못하고 친일을 해서 이 고초를 당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나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고 했다. 그렇다. 그 시대에 지혜를 가졌다는 평을 받았던 이광수도 일본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해방 될 것을 몰랐던 것이다. "나는 몰랐다." 그렇다고 그의 친일행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 장르 중에서도 특히 '혼(魂)'과 '기(氣)'를 중시하는 분야가 서예다.

그래서 '서도(書道)'라고 부르기도 한다. '글씨는

기에 부족하니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한다. 다섯 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기름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황급히 기름을 사서 돌아온 처녀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마25:11~12)

얼마나 억울 했을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그들 역시 그랬을 것이다. "나는...몰랐어요." 그 시간에 울 줄 몰랐어요. 어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었는데, 몰랐어요. 그때 신랑의 대답은 간단하고 단호하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늦었다는 것이다.

이런 절규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처절히 울려 퍼질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줄 몰랐습니다. 내 친구가 믿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들었던 예수천당 불신지역이 진짜 일 줄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났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도 안될까요?" 역시 주님의 대답은 단호하다.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전해지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진리 따라 살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알던 대로군요. 믿은 대로군요. 그러면 그렇지."라고 고백하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회산책



이러한 미국의 전쟁, 무자비하게 쏟아 부는 최첨단 무기들 앞에 인간의 목숨은 꽃잎처럼 떨어진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성경을 바탕으로 서 있는 나라들이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단 지파의 라이스 정복 기사는 단순한 고대 부족의 영토 확장사나 영웅적인 승전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종교적 외피를 입었을 때 얼마나 잔혹한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고발장이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 분배해주시신 본래

기독교인들이 이 잔혹한 침략과 무모한 군사 행동을 아전수석으로 해석하며, 현대의 패권주의적 폭력을 '성경적 정당성'이라는 이름으로 감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성경이 단 지파의 행동을 범죄와 타락으로 규정했다는 본질적 맥락을 완전히 거세한 채, 오직 '선택받은 민족의 영토 확보'라는 외형적 프레임만을 취하여 강대국의 일방적인 군사 압박과 보복 정치를 신앙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는 고대 단 지파가 범했던 종교적 사기극의 현대적 변형에 불과하다.

오늘날의 국제 역학 관계 역시 이 오래된 권력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외교적 해법을 모

타협의 가능성을 상심한 채 가장 잔인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변질된다.

성경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결국 사사로운 이익을 좇아 움직인 가짜 목자였음을 폭로함으로써, 종교적 명분 뒤에 숨은 탐욕의 민낯을 매섭게 지적한다. 전쟁 법적인 신명기 규정은 어떤 성을 공략 전에 반드시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엄중히 명령한다. 최소한의 대화와 공존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인도적 선언이다. 그러나 단 지파는 이 준엄한 신적 명령을 무참히 짓밟고 예고도 없이 기습과 전멸을 선택했다. 오늘날의 분쟁 지역에서도 대화와 중재라는 제도적 절차보다는 선제 타격과 즉각적인 보복이 당연시되며, 인간의 무고한 희생을 어쩔 수 없는 부

###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생명들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의 영토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강력한 원주민들에게 밀려나자, 북쪽으로 이동하여 외부와 단절된 채 평화롭게 살아 가던 성을 라이스를 기습한다. 그들은 침략의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서 우상 신상과 제사장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도적질과 학살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했으며, 무방비 상태의 라이스 주민들을 전멸시킨 뒤 그 지역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세웠다. 성경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전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사사기 특유의 엄중한 서사를 통해, 이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명백한 도덕적·영적 타락이자 불법임을 분명히 못 박으며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대의 비극은 현대 국제정치 무대에서,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거대한 긴장 구도 속에서 기이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오늘날 일부 극우

색하는 대신, 특정 대상을 악마화하고 고립시킨 뒤 압도적인 군사력을 투입해 내부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처참하게 짓밟히고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이들은 언제나 무고한 시민들과 약자들이다. 더욱 심각한 논리적 왜곡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앙을 도구화한다는 사실이다. 단 지파가 침략의 길목에서 레위인 제사장과 우상을 탈취해 군대의 선두에 세운 것은, 자신들의 명분 없는 악탈을 신의 축복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신을 독점하려 했다. 현대의 극우 기독교 세력이 국가적 이익이나 지정학적 패권 전쟁을 '민주주의 수호', '역사적 정의', 혹은 '신의 대리전'이라는 거룩한 수사로 포장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인간의 이기적 신념이 폭력을 합리화하는 무기로 전락하는 순간, 종교는 성찰과

수적 피해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힘으로 라이스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세워진 도시 단은 끝보기엔 화려한 승리의 결과를 낳았으나,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몰락으로 이끈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 무력으로 구축된 평화는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또 다른 갈등과 피멸의 씨앗을 잉태할 뿐이라는 역사적 증명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공존의 토대를 닦는 화평의 노력은 더디고 유약해 보일지라도 갈등의 구조적 토양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한규 목사  
들꽃사랑교회 담임  
시인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 자녀를 위한 매일기도 2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9:15)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죄인 중의 괴수로 있을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저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 사명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는 부르심의 은혜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지는 위 글을 펴낸곳과 협의의 거쳐 게재한다. (펴낸곳: 공란출판사 / 박은주 지음)

노블요양병원

밝은마음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339-9905. FAX 061)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010-7676-6706  
<http://peacemind.co.kr>